

고객중심·新성장·ESG경영 필두... “위기 속 기회 찾자”

산업계 신년 메시지

산업계가 신년사를 통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자고 입을 모았다.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친환경과 소통에 중점을 둔 ESG 경영 실천도 당부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정 의선 회장은 새해 메시지를 통해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9년 ‘게임 체인저로의 전환’을 선언한 이후 노력들을 고객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

신성장동력을 향한 의지도 다시금 다졌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 사업 영역에서 스마트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년사를 메타버스 라이브 스테이션 무대에서 영상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친환경 선두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에 방점을 찍었다.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고 만족하는 ‘친환경 톱 티어 브랜드’가 되기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데, 전동화 핵심 부품과 첨단소재 등 차세대 기술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동화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창립 70주년을 맞아 ‘미래 한화’를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창업 당시 열정과 도전정신을 되새기며 100년 한화 미래를 향한 도약의 한해로 만들어가자는 것.

올해에는 일상을 회복하고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발걸음을 재촉하자고 당부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더 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신사업 성과를 앞당기고 항공우주와 그린에너지, 디지털금융 등 미래사업을 확신과 목표의식으로 성장시키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으로 실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새로운 미래 설계하는 대전환 발걸음 재촉해야”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
“최고의 고객 경험으로 사업 품격 높여야”



최정우 포스코 회장
“지주사 중심 그룹차원 ESG 경영 매진”



김준 SK이노베이션 회장
“팔로워 아닌 개척자로 ESG 경영 실천 가속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모든 사업·방식 고객 중심으로 전환”

고 설명했다. 핵심인재 육성과 영입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새로 대표직을 맡은 한중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이름으로 ‘2022년 신년사’를 전달했다. 양 대표는 최고의 ‘고객 경험’을 통해 사업 품격을 높여가자며,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패를 용인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포용과 존중의 조직 문화를 뿌리내리자며, 준법의식을 체질화해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은 팔로워가 아닌 개척자로 ‘1위 마인드’를 갖자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빈틈없는 안전 관리와 함께 ESG 경영 실천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기업문화 업그레이드도 약속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역시 창립 60주년을 맞아 친환경 사업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카본 투 그린’ 혁신으로 탄소 중립 달성과 기업가치 제고도 강조했다. 배터리 사업 수익성 개선과 재활용 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 창출 및 파이낸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ESG 중심 경영 실천도 요청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신년사에서 ESG 경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친환경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주사 중심으로 그룹차원 ESG 경영을 이끌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매진한다는 의미다.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2050 탄소 중립’ 실행방안도 주문했다.

기술적으로도 고로 기반 저탄소 기술

개발 확대와 전기로 신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가속화와 이차전지 소재 사업 생산 능력 확대 및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체제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기여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LG 역시 구광모 대표와 LG전자 조주완 사장이 지난달 고객 감동을 당부했던 상황, LG에너지솔루션을 새로 맡게된 권영수 부회장이 신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고객이 바로 임직원이라며,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6대 과제로 새로운 보고와 회의, 자율근무와 수평, 공정과 즐거움, 나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구성원 호칭을 남으로 통일하고 완전 탄력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역시 올해를 ‘고객의 해’로 선포하며 힘을 더했다. 사업의 본질이 바로 고객이라며, 모든 사업과 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신 부회장은 지속 가능성도 강조했다. 선제적으로 ESG 리더십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성장과 넷제로 탄소 감축 목표 상향을 검토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하자고 말했다.

LG이노텍 정철동 사장 역시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강한 실행력을 갖자고 당부했다. 실행 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전하고 집요하게 실행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프라이드 활동과 디지털 전환 및 ESG 경영 강화도 약속했다.

LS그룹은 3대째 ‘아름다운 승계’를 마무리한 신임 구자은 회장이 임직원 앞에 섰다. 탄소 중립 시대를 기회로 인식하고 ‘양손잡이 경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임인년 키워드는 #변화 #혁신 #디지털... “미래에 과감히 도전”

유통가 신년 메시지

유통가수장들은 2022년을 포스트 코로나의 시작점으로 보고 대전환의 시대, 변화와 혁신에 과감하게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비즈니스 정상화를 넘어 더 큰 도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들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도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생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온전한 ‘디지털 피보팅’만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비즈니스 정상화 넘어 더 큰 도약 만들어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 심장으로 생각해야”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래 성장 위해 대변혁 시작해야”

위한 준비와 계획은 모두 마쳤고 이제 오프라인조차 잘하는 온라인 회사가 되기 위한 실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CJ그룹 손경식 회장 역시 올 한해 “미래 성장을 위한 대변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CJ의 미래혁신성장 달성을

을 위해 “4대 미래 성장엔진 기반 위에 선정된 혁신성장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와 M&A 등을 철저히 실행하고 미래 트렌드와 기술에 부합하는 신사업을 지속 발굴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나이와 직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마음껏 도전

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 사내 독립기업, 스피노프 등 모든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뷰티 기업들 역시 혁신을 통한 글로벌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새 시대 고객이 원하는 ‘뉴 뷰티’를 선보이자”고 역설했다.

서 회장은 “우리가 선보일 뉴 뷰티는 모든 존재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며 그 잠재력에 주목하는 아름다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전통적 뷰티의 영역을 넘어 일상 전반을 포괄하는 ‘라이프 뷰티’로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개개인에 맞춘 최적의 아름다움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집요한 혁신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명품 뷰티 회사”를 목표로 내세웠다.

차 부회장은 “2022년은 ‘리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동시에 경제정상화로 가는 마지막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요한 혁신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명품 뷰티 회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